

가정예배 · 구역예배 교재

6

2002

충현의 만나

가정예배 · 에스겔 / 고린도 전 · 후서
구역예배

대한예수교
총회
충현교회

가정예배 · 구역예배 교재

6

2002

충현의 만나

가정예배 · 에스겔 / 고린도 전 · 후서
구역예배

『충현의 만나』는
성도들의
가정예배와 구역예배를
돕기 위해
충현교회가
매달 발간하는
교재입니다

기도제목

1. 우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거하고 그 복음을 따라 행하며 전하게 하소서.
2. 우리 교회가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3. 모든 교회 일꾼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 성령 충만한 가운데 교회를 섬기게 하소서.
4. 구역예배가 살아 움직이고 이를 통해 교구가 성장하여 교회가 진정한 영적 부흥을 이루게 하소서.
5. 새벽기도회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더욱 힘있게 하시고, 5부예배를 통하여 젊은 일꾼들이 복음 안에서 바르게 양육되게 하소서.
6.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아보는 일에 저희를 써 주소서.

6월의 분주함



지금 세상은 온통 '월드컵' 축구경기로 북적거리고 있습니다.
대중매체까지 가세해서 사람들의 눈과 귀를 경기장으로 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교육을 책임져야 할 국가가 시합이 있는 날에는
초등학교를 임시 휴교하는 방침까지 세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북적거림은 세상사람들만 그런 것은 아닌 듯 합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마저 월드컵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하긴, 영국의 어느 교단에서는 자기나라의 시합이 있는 날에는
예배를 일찍 끝내고, 교회에 설치된 텔레비전으로
경기를 보여줄 계획을 세웠다는 기사를 읽어본 적도 있습니다.

분득,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겪게 되는
아주 위험한 일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세상의 관심에 빠져 분주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세상에 대해 집요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시원함과 세상의 달콤함에 젖어두고,
세상의 관심과 세상의 즐거움에 눈과 귀가 머무를수록,
점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영생의 양식은 싫어질 것이며,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예전의 썩어질 음식을 그리워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은 '데바'라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되돌아가 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딤후 4:10).
진실로 세상 때문에 분주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시간조차 없는
바쁜 사람이며(마 22:5), 천국 때문에 바쁜 사람은 십자가로 인하여
세상에서 가장 분주한 사람입니다(고후 11:23, 27).
6월을 맞이하면서, 진실로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주를 향한
'성실한 마음'(single heart)을 상실하지 않기를 기도해 봅니다.

2002년 6월을 맞이하며 위임목사 김 성 관

고린도전서 서론

로마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와 함께 바울의 4대 서신의 하나인 본 서는 로마서, 갈라디아서가 교리적인데 비해 실제적인 서신이다. 특히 본 서에는 초대 교회 당시의 생활 모습과 실제적인 문제점들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어 초대 교회의 내면 생활 및 역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된다. 당시의 고린도 시는 타락이 극에 달해 있었다. 타락한 도시에서의 고린도 교인들이 실제적으로 부딪힌 영적, 도덕적 문제들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고 있는 본 서는 주로 그리스도인들의 실천적인 삶과 신앙에 그 강조점을 두고 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산업 사회와 도시 역시 방대한 양의 지식이 축적되어 있고 성적 타락과 술, 담배, 마약 등 향락 추구의 분위기가 극에 달해 당시 고린도 시를 방불케 한다. 또한 교회 내적으로는 교회가 대형화, 조직화의 추세로 확장되면서도 성경적 체제와 삶의 균준을 제대로 설정하지 못하고 분쟁, 신앙의 미성숙 등 여러 가지 갈등 문제에 무심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본 서신의 현대적 의의는 자못 중차대하다. 우리는 본 서를 통해 사분 오열(四分五裂) 되는 현 교회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며 성도의 결혼, 가정 생활, 교회 지체로서의 임무,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절제, 은사의 바른 활용 등 실질적이면서도 다양한 삶의 문제를 바른 진리로 인도 받을 수 있다.

본 서의 저자는 내적 증거나 외적 증거를 통해 사도 바울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다. 그리고 수신인은 제목에 나타나 있는 대로 바울이 손수 개척했던 고린도 교회들을 주축으로 하여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였던 모든 성도들을 알 수 있다. 본 서신의 기록 장소는 당시 소아시아의 수도였던 에베소이며, 이러한 근거는 본 서신 16:8의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유하려 함'이라는 문구에서 직접 나타나고 있다. 기록 시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혀지고 있지 않는데, 고린도 교회의 분쟁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A. D. 53-58)을 떠나기 직전에 발생했다는 점과 바울의 에베소 체류기간(행 19:8-10; 22:31)이 3차 전도 여행기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본 서의 기록 연대는 A. D. 55년 전후로 볼 수 있다.

기록 목적에 대해서는 1:11과 16:17을 통해 다음 두 가지 사실에 있다. 첫째, 바울은 글로에의 집 사람들의 보고를 통해서 제기된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주고자 본 서를 기록하였다. 그 문제들이란 고린도 교회의 분열과 바울의 사역에 대한 오해(1-4장), 근친상간과 간음죄를 비롯해 성적으로

부도덕한 행위들(5장), 법정에서 다른 성도들을 송사하는 비그리스도적인 행위(6장) 등이다. 둘째,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대표자들에게서 온 편지(7:1)를 받고 거기에 제기되어 있는 몇 가지 질문에 답변을 주고자 본 서를 기록하였다. 그 질문 사항들은 혼인에 관한 문제(7장), 우상의 제물에 관련되는 것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오해함으로써 생기는 방종한 행위에 관한 문제(8-10장), 공공 기도시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쓰는 일, 무질서한 만찬, 성령의 은사의 활용 등과 같은 예배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무질서한 행위들에 관한 문제(11-14장), 그리스도의 부활 및 육체의 부활에 대해 그릇되게 이해하는 문제(15장) 등이다.

본 서신은 다음과 같은 신학적인 의의를 갖는다. 첫째, 본 서는 신약 성경 중 다른 어느 책보다 이교(異敎)와 투쟁하는 기독교의 면모를 보여줌으로써 유일신 사상을 더욱 고취시켜 준다. 둘째, 본 서는 교회의 권징, 교회와 사회의 교류 및 관계, 공중 예배와 관련된 제반 원리들, 성만찬의 본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을 통해 목회 활동의 제반 원리와 실제적 교훈들을 제시해 준다. 셋째, 본 서는 초대교회의 형성, 발전, 교리의 정립, 바울의 전도 여행등 초대 교회에 관련된 여러 가지 역사적인 자료들을 제공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 초대 교회사를 연구하는데 있어 기념비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서는 예배 행위를 비롯해 그리스도인의 은사와 교회를 위한 각종 은사 등 교회론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과 실재를 밝혀 주고 있다는 점에서도 신학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내용분해

1. 분열에 대한 답변(1:1-4:21)

1) 서론(1:1-9)

2) 분열에 대한 소식(1:1-17)

3) 분열의 이유(1:18-4:21)

2. 간음에 대한 답변(5:1-6:20)

3. 질문들에 대한 답변(7:1-16:24)

1) 혼인에 대한 권고(7:1-40)

2) 우상 제물에 대한 권고(8:1-11:1)

3) 공공 예배에 대한 권고(11:2-14:40)

4) 부활에 대한 교훈(15:1-58)

5)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한 헌금(16:1-4)

6) 결론(16:5-24)

40장부터 마지막 48장까지는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세워질 성전에 대한 이상입니다. 40-43장에는 새 성전의 구체적 형태가 설계도면처럼 기록되어 있고 44-46장은 새 성전에서 드리게 되는 예배행위, 그리고 마지막 47, 48장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땅의 재분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환상으로 본 이 성전은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이나 헤롯이 지은 성전처럼 실제로 지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성전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새로운 질서를 보여주고 있으며 나아가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다는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성전은 메시아의 도래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회복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전을 통해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더 이상 구약의 희생제사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제사장이 되시고 제물이 되어서 성전 휘장을 제거하였기에 성도들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의롭다함을 얻은 성도의 몸은 예수님이 계시는 성전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계시는 성전인 자신의 몸을 어떻게 가꾸고 있습니까?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할 성전을 죄와 더러움이 있는 세상에 그냥 두고 있지는 않는지요? 성도는 죄의 길, 악한 길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하여 각각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야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고전 3:16)

기도 제목 / ①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 ②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소금과 빛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하나님의 천사의 손에 이끌리어 성전 밖을 보고 난 에스겔은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41장은 성소의 내부에 대해 묘사하고 있는 부분(1-4절)과 지성소의 벽과 골방에 대해 기술하고 있는 부분(5-12절), 성전의 외부 치수를 기록하는 부분(13-15절), 성전 내부 장식에 대해 기술하는 부분(16-26절)으로 구성됩니다.

오늘은 1-4절 말씀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성소를 측량하는 부분인데 에스겔은 제사장이었지만 성소까지만 들어가고 지성소에는 천사가 들어가서 측량을 합니다.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일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사람이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없습니다. 인간은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가까이 가지 못하고, 떨어진 곳에서 신발을 벗은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된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성소의 휘장을 제거하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힌 담을 헐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로 물든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과 직접 교제할 수 있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기도 제목 / ① 십자가 앞에서 매일매일 죽는 신앙을 가지게 하소서. ② '위임목사님' 이 복음만을 전하는 성령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성전 본체에서 나와 보면 성전 뜰에는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방들이 있습니다. 이 방들은 북쪽과 남쪽 뜰 안에 나란히 있고 3층으로 되어 있으며 각방의 구조와 크기는 동일합니다. 이 방은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들을 먹고, 수종하는 의복을 갈아입고,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들을 두는 거룩한 방입니다.

성전과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방은 높은 담으로 외부와 구별되어 있습니다. 한 변이 5백 규빗인 정방형의 성전 외곽 담은 견고함과 안정성을 상징하며 외부의 속된 것으로부터 성전의 거룩함을 지켜주는 역할, 즉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구별하는 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전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의 임재 장소도 거룩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과 백성들의 만남의 장소로서 성전이 의미를 가졌지만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성도 각각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 되는 길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여러분의 몸은 항상 거룩함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속된 것과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의 몸을 통해서,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구별되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도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성도는 세상에 속하여 있지만 세상과는 구별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기도 제목 / ①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하고 행동하게 하소서. ②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담당자들'에게 기쁨과 감사와 준비된 헌신이 있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앞 장(40-42)에서는 성전의 외적 양식들을 측량하고 그 용도를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것은 모두 주님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한 준비에 불과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에만 비로소 그 의미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임재하는 상황이 구체적으로 묘사됩니다. 많은 물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과 함께 땅은 그 영광으로 빛납니다. 사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가는 장면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10:18-22, 11:22-24). 그 후로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고(호1:9), 성전은 파괴되었으며, 백성들은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금 새 성전에 임재하심을 보고 있습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이 과거의 영광과 하나님의 마음에 흠족한 제사를 회복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주어집니다(6-9절).

새 성전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은 장차 도래할 전 우주에 충만하실 하나님 영광의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인간의 죄를 근본적으로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있습니까?

기도 제목 / ①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항상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게 하소서. ② 충현교회가 민족 복음화를 위하여 더욱 헌신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구약에서의 제사장은 특정한 집안의 특정한 사람만이 담당할 수 있는 직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은 제사장이 해마다 절기마다 담당하던 제사를 단번에, 그리고 완전하게 드림으로써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제사장의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전이 완성되고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않으면 제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7절). 마음의 할례란 영적인 할례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영적인 할례입니다. 그래서 44장은 제사장의 성결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제사장은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성결해야 합니다(17-22, 25-27절). 의복은 두꺼운 양털 옷을 입지 말고 가는 베옷을 입도록 합니다. 베관을 머리에 쓰고 베바지를 입어야 합니다. 머리카락은 길게도 짧게도 안 되고 적당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안뜰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야 하며, 그 외에도 레위기에서 규정한 많은 규례를 다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맡은 제사장의 몸가짐은 이렇게 어렵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사람과는 다른 삶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은 세상적인 삶과 구별되고 있습니까?

기도 제목 / ① 하나님의 성전인 나의 몸을 죄악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② 교역자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귀한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참된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삶과 사람을 향한 삶을 구분하게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그리고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지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땅의 분배와 제사 규례를 통해 보여 주고 있습니다.

땅을 분배한 순서를 보면, 먼저 하나님의 땅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성전을 세웁니다. 다음에는 성소 주변을 제사장에게, 그리고 그 옆을 레위인, 그 다음에 성소의 양쪽 옆을 왕에게의 순서로 땅을 분배하고 마지막으로 각 지파에 땅을 분배합니다. 땅은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직무에 따라 분배합니다(1-8절). 이는 국가의 조직과 경제 정의가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직된 사회와 경제 정의는 결국 하나님께 드리는 속죄제로 초점이 모아집니다. 땅을 가지는 것과 제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임을 선지자는 말합니다(17-25절).

사람들에게 주어진 재물이나 직분 그리고 권력은 결국 하나님을 위한 것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에만 의미를 가집니다. 인생의 목적 또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 용서함을 받고 예수그리스도만 의지할 때 인생의 참된 목적과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 / ①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게 하소서. ② 당회원들이 성령 충만하여 교회를 온전히 섬기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선지자는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사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특별히 왕의 몸가짐을 묘사합니다(1-15절). 그리고 왕이 소유한 영지(領地)와 재산을 관리하는 것과(16-18절), 희생제물을 삶는 성전 부엌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19-24절).

제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의식입니다. 제사는 안식일과 월삭에, 모든 정한 절기에, 또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제시는 왕이든 백성이든 모두 빠짐없이 드려야 하며, 제사장을 통해서만 드릴 수 있습니다. 또 제물은 일년 된 흠 없는 것을 드려야 하며, 소제물(素祭物)은 그 힘대로 드려야 합니다(1-15절).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 왕은 백성들과 동일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왕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특별한 지위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백성의 한사람으로서 속죄 받아야 하는 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왕도 백성들이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흠 없는 어린양을 제물로 바쳐야 합니다.

어린양의 피가 아니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대제사장이며 흠 없는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뿐입니다.

기도 제목 / ① 주님의 십자가 은혜 감사합니다. ② 모든 예배와 집회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성전 문지방에서 스미어 나오는 물이 발목을 잠기게 하는 작은 시내가 되고, 점점 흘러내려 무릎을 잠기게 하는 개울이 되고, 다음에는 허리를 잠기게 하고 나중에는 헤엄을 쳐야하는 큰 강물이 됩니다. 그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모든 생명이 살아나고 강가에는 실과가 주렁주렁 열립니다.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생명수가 되어 이 물이 공급되는 곳에는 진정한 생명의 회복이 일어남을 보여줍니다. 광야에 물이 흘러, 말랐던 나무에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고 소금기로 죽어있던 사해 바다는 물고기가 뛰노는 생명의 바다로 변합니다. 이토록 은혜로운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은 메마른 유다 광야와 죽음의 바다에 생명력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 처소입니다. 구약시대에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곧 성전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요2:19-21). 그러므로 예수님이 곧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생명강수가 흘러가는 곳마다 죽었던 생명이 살아납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는 곳, 복음의 진리가 선포되는 곳에는 생명의 힘찬 운동이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 생명의 운동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주의 종들입니다.

복음의 진리에 붙들리게 되면 새로운 생명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기도 제목 / ① 생명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게 하소서. ② 교회 직원들이 선한 청지기로서 맡은 바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마지막 장에는 일곱 지파의 땅 분배에 대하여 묘사하고 있는 부분(1-7절)과 하나님에게 속한 땅의 분배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부분(8-22절), 나머지 다섯 지파들의 땅 분배에 대해 묘사하고 있는 부분(23-29절), 그리고 성읍의 출입구에 대한 할당을 묘사하고 있는 부분(30-35절)으로 구성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10:18-22, 11:22-24).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 환상도 보았습니다(43:1-5).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새 언약을 통해서 영원토록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심을 보았을 때 “여호와 삼마”(여호와, 여기 계시다)를 외치며 예언서를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악 속에서 방황하던 이스라엘, 그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의 징계와 심판을 받게 된 이스라엘이었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신 구속의 약속은 백성들을 포로에서 해방시키시고 성전 예배를 회복시키시며 마침내 자기 백성들과 함께 거하는 은혜로 나타나게 됩니다.

포로 생활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여호와 삼마”를 외친 에스겔 선지자의 힘찬 예언은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 결국 성취되었습니다. 죄와 죽음의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주님은 사랑하는 자녀들과 항상 함께 계십니다.

기도 제목 / ① 주님을 본받아 살아가게 하소서. ② 교회 일꾼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각자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하나님께서서는 이교의 풍습과 타락한 사회적 환경에 있는 고린도인들에게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심으로 고린도 교회를 세우시고, 많은 신령한 은사들을 내려 주셨습니다(5-7절).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여전히 세상적인 삶에서 떠나지 못하고 많은 윤리적인 문제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쾌락주의에 빠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1장부터 6장까지는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에 대한 바울의 책망과 훈계와 권고의 내용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문제들이 생기게 된 이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바로 서있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고린도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의 복음'을 어리석고 미련한 것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22, 23절). 그러나 바울은 분명하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18절)고 밝히고 있습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만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전하는 것은 세상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볼 때는 분명히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세상의 지혜나 지식이 아닌 십자가의 복음으로 굳게 서 있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의 복음만이 오늘이 시대에도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복음만이 인생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기도 제목 / ① 십자가의 복음에 굳게 서 있게 하소서. ② 교회의 모든 위원회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업을 전개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바울은 1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고린도에 보내신 것은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라고 밝혔습니다. 본 장에서는 바울이 어떤 마음과 자세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1-5절에 나타난 바울의 작정과 그의 확신에 대해서 상고하겠습니다.

바울은 먼저 고린도에 복음을 전할 당시 자신은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3절)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육체적인 허약함도 있었지만, 고린도에 이르기 전 아덴에서의 전도의 실패 때문에 인간적인 중압감이 있었다고 자신의 나약함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약함에 머물러 있지 않고 돌이켜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의지해서 복음을 전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4절). 왜냐하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영접하는 일은 사람의 말과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울은 고린도에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알지도 전하지도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2절). 이것은 바울이 자신의 경험과 철학과 지혜로 복음을 전하다가 실패한 뼈저린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행 17:22-34).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알고 전하겠다는 작정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누구든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고전 15:2)라는 강한 확신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약하여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는 약하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기도 제목 / ① 복음에 대한 강한 확신을 주옵소서. ② 찬양대원들이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영적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현재 영적인 상태를 “육신에 속한 자” (3절)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교회에 나오지만 복음을 바로 깨닫지 못하여 영적인 성장이 전혀 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 있는 신자들입니다(1, 2절). 이런 자들은 결국 교회에 분쟁을 일으킨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처럼 바울과 교회 지도자들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인들은 이들 중 각자가 선호하는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분파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저들이 저렇게 치켜세우는 지도자들을 농사짓는 “농부들”로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6-9절). 바울은 자신은 마치 씨를 심는 자 같이 복음을 전했고, 아불로는 물을 주는 자처럼 목회사역을 했지만 결국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이라고 말합니다(6절). 이것은 결국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가지고 교회와 교인들을 섬기는 사역자에 불과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며, 섬기기 위해 부름 받은 종들을 편당의 우두머리로 세우는 일은 정말로 어리석고 잘못되었다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섬기기 위하여,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신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막10:45). 진정한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입니다. 교회에 있는 모든 직책은 명예와 권세의 직책이 아니라, “섬김의 직책”입니다. 주님처럼 낮아진 종의 모습으로 섬기시는 충현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는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 제목 / ① 주님처럼 서로를 섬기는 종 되게 하소서. ② 교회학교 교사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천국일꾼 양성에 더욱 헌신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오늘은 예수님의 참 제자의 삶에 대해서 상고하려고 합니다. 참 제자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바울은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에서 고린도인들의 삶과 자신과 아볼로의 삶을 비교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에 대해 바울은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요하며 우리 없이 왕 노릇 하였도다'(8절)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인들은 모든 축복들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자신의 것인 양 자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겼습니다. 이런 모습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그야말로 "지혜롭고 강하며 존귀한"(10절)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볼 때에 너무나 세속적이고 이기적이고 교만한, 그래서 예수님과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과는 반대로 바울과 아볼로는 그리스도 때문에 '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 맞으며 온갖 비방과 핍박을 당하며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같이' 되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하고 약하고 비천하게"(10절)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까? 그 길이 바로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길이요, 참 제자가 걸어가야 할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가 바로 이처럼 살았기에 자신의 인격과 삶을 본 받으라고 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십자가의 복음 안에 들어와 있는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그렇다면 바울처럼 주님께서 가셨던 십자가의 길, 종의 길을 가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말로만 복음 안에 들어와 있고, 말로만 복음을 외치는 거짓 제자로 주님 앞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입니다.

기도 제목 / ① 바울처럼 십자가와 종의 길을 가는 참 제자가 되게 하소서. ② '단기 선교'를 위해 모든 교구원들이 믿음으로 준비하며 협력할 수 있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겉으로는 십자가의 복음을 좇는다고 말하면서 변화된 거룩한 삶을 추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본 장에서 음행의 문제가 고린도 교회 내에 있음을 밝히면서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내에서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사는 아내(젊은 첩을 가리킴)를 취하는 음행이 있었습니다(1절). 그런데 바울을 더욱 분노케 한 것은 이런 악한 범죄를 행하고도 그 일에 대해 회개한 것이 아니라 교만해져서 그 사람을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2절). 아마 이런 현상은 물질의 세계는 악하고, 영의 세계만이 선하다는 당시에 유행하던 영지주의의 영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혀 회개하지 않고 심지어는 자랑을 하려는 자세를 취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에 대해 바울은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 회의로 모여 사단에게 내어 주라' (5절)고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신앙 공동체의 순결성을 유지하기 위해 출교 시키라는 말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발견되는 부패된 행습들이 발견되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만약 이런 죄악들을 그대로 두면 교회는 더 이상 그리스도의 교회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더러운 세상에서 거룩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피값으로 살게 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를 이루는 일원이 되었음을 깊이 인식하고 죄를 멀리하며 거룩함을 추구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나타나야 할 거룩한 백성입니다.

기도 제목 / ① 항상 죄를 멀리하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일꾼 되게 하소서. ② 남 여전도회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우리에게도 다툼과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교회 내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교회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마 5:39-42)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교회 내의 문제들을 불신 재판관들 앞으로 가지고 가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은 신령한 자들로서 그들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1-6절). 그러면서 바울은 너희 가운데 이런 일을 판단해서 해결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없었느냐고 탄식합니다(5절). 고린도인들은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의 지혜' 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2장 15절에서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인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안에 들어와 있었다면 성령의 인도를 통하여 일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을 것입니다.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섰을 때 하나님의 영광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이익과 명예가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영광이 불신자 앞에서 짓밟히게 된다면 그것은 결코 바른 행위가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의 이런 소송 문제 뿐 아니라 우리가 모든 일을 처리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바로 주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 많은 일을 처리하고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임을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말과 행동은 하나님의 영광에 맞추어야 합니다(롬15:6).

기도 제목 / ① 신령한 분별력과 판단력으로 주의 일을 하게 하소서. ② 각 교구를 섬기는 '모든 교역자와 일꾼들'에게 은혜와 능력과 건강을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바울은 본 장부터 16장까지에서 고린도인들이 그 전에 편지로 질문했던 여러 가지 신앙적인 문제에 대해 답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 장에서는 성도들의 결혼 문제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1-7절까지는 결혼 생활을 하는 부부의 의무에 대해서, 8-16절은 독신과 이혼 문제에 대해서, 17-24절에서는 그리스도인의 본분에 대해서, 25-40절에서는 처녀의 결혼과 과부의 재혼에 대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이혼에 대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당시 고린도 지역은 도덕적으로 극히 타락해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혼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영향이 교회에까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먼저 바울은 부부가 모두 그리스도인일 경우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혼을 금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득불 이혼한 경우라도 가능한 다시 결합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10, 11절). 왜냐하면 결혼은 하나님께서 맺어 주신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입니다. 부부 중 한편이 불신자일 경우는 불신자들을 버리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입니다(13, 14절).

너무 쉽게 이혼하는 세태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결혼하게 해 주셨음을 깊이 인식하고 그 어떤 경우에도 이혼이라는 극한 상황은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주장하는 자세보다 사랑과 희생과 봉사를 통하여 가정의 행복이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것이 또한 이웃에 대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결혼의 중매자이십니다.

기도 제목 / ① 사랑과 희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부부가 되게 하소서.
② 교회 각 분야에 봉사할 '신실한 일꾼들' 을 많이 허락해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고린도는 아가야의 수도로서 우상 숭배가 성행한 도시였으므로 신에게 제물을 바치고 그 음식을 먹는 일은 흔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복음으로 살아야 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고린도 교인들에게 오직 한 분이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경배의 대상이고 우상들은 그저 목석일 뿐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4, 6절). 그러므로 나무 막대기인 이방신 앞에 놓인 제물은 우리가 먹는 그냥 음식일 뿐이라는 것입니다(8절). 그래서 이런 먹는 음식을 먹느냐 못 먹느냐 따지는 것은 불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음식의 문제에 대해 자유를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상처를 받는 형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의 자유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은 좋으나 아직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약한 형제를 생각하지 않고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은 그 형제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즉 바울은 내 곁에 있는 형제를 돌아보지 않는 자유는 진정한 복음의 자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라고까지 말합니다(12절).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복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은 혼자 누리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다 함께 공유하고 나누어 가져야 할 것입니다. 복음의 자유를 누리되 옆에 있는 형제의 약함과 아픔을 함께 끌어안고 나눌 수 있는 사랑의 복음을 소유한 충현의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진리의 자유는 약한 형제를 돌아보는 사랑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기도 제목 / ① 형제에 대한 사랑 안에서 참 진리를 행하게 하소서. ② 교회의 모든 일들을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좇아 행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바울은 본 장에서 자기는 아무 것도 거리질 것이 없는 자유로운 존재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사도로서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마저도 복음을 위하여 포기하고 종된 생활을 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4-6절에서 하나님의 사도로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세가지 필수적인 권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먹고 마시는 권리입니다(4절). 둘째는 다른 사도들과 같이 부부가 함께 복음 사역을 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입니다(5절). 셋째는 선교를 하는 동안 선교에만 전념하기 위해 교회로부터 녹(祿)을 받을 권리입니다(6절). 그러나 바울은 이 모든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복음을 온전하고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12절). 바울은 낮에는 '천막짓기'를 해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밤에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 돈을 받고 지식을 팔았던 자들과 같이 취급받지 않고 온전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또한 그는 자유인이었지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종의 모습으로, 이방인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바울의 궁극적인 관심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땅을 사는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혹 나의 권리와 자유를 손해보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참다운 복음 전파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스스로 종이 되신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 기꺼이 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의 관심은 온통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기도 제목 / 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자신의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② 이웃을 향한 구제와 봉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만을 전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의 내용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째 단락은 이스라엘 역사를 거울 삼아 죄악에 빠지지 말 것을 당부하고(1-13절), 둘째 단락은 우상 숭배의 어리석은 죄를 범하지 말 것을 경고하며(14-22절), 셋째 단락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유를 제한 할 것을 권면합니다(23-33절).

오늘은 그리스도인이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사랑의 법칙에 대해서 상고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있다는 것입니다(31절). 먹든지 마시든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벧전 4:11). 그러면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누구에게든지 거치는 자가 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32절). “거치는 자”라는 말은 ‘걸림돌이 되어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자’라는 말입니다. 즉 자신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 상대방을 실족케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의 유익을 위한 삶이 아닌 그리스도인의 복음적인 삶을 통하여 주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33절).

성경은 우리의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공부한다면 공부의 목적도, 사업을 한다면 사업의 목적도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입니까? 아니면 “거치는 자의 삶”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인생이 살아가는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기도 제목 / ① 나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되게 하소서. ② 각 나라 가운데 뿌렸던 복음의 씨앗이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부터 14장까지는 교회의 예배에 관한 몇 가지 질문들에 대한 바울의 답변이 이어집니다. 바울은 2-16에서 여자들이 너울을 쓰지 않고 예배에 참석하는 문제에 관하여 다루고, 17-34절에서는 성찬식에 관한 내용들이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교회에 모여 예배할 때 성만찬을 기념했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예식이 분쟁과 무질서로 더럽혀져 그들에게 해가 되고 말았습니다(18절). 성만찬은 더이상 주의 만찬이 아니었던 것입니다(20절).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기념한 주의 만찬은 실제적인 식사로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주의 만찬을 위해 부자들은 자기 집에서 기쁨진 음식을 만들어 와서는 가난한 자들과 노예들이 오기 전에 먼저 먹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뒤에 온 가난한 자들과 노예들은 주의 만찬에 참석해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감격적으로 체험하기는커녕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느끼고 돌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부자들의 자기 중심적인 행위는 결국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22절) 모임이 되었고, 인간의 저급한 이기심과 교만이 지배하는 세속적인 모임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성만찬은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된 형제 자매임을 확인하는 거룩하고 복된 자리입니다. 성만찬의 의미를 상실하면 고린도 교회와 같이 됩니다. 충현의 성도들은 모든 삶 속에서 성만찬의 의미를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만찬은 그의 죽으심과 구속을 기념하는 식사입니다.

기도 제목 / ①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소서. ②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는 열심을 회복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하나님께서서는 감독이 자신의 의도대로 베풀을 선정하듯이 성도 각 사람에게 각각의 어울리는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본 장은 은사의 다양성과 영적 인치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전반부(1-11절)와 그리스도와 신자들과의 관계를 몸과 지체로 비유한 후반부(12-31절)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전반부를 상고하겠습니다. 바울은 먼저 기본적으로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영적인 은사는 성령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주어진다고 말합니다(8-11절).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은사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은사는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유익하게 쓰이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7절). 그러므로 불필요하게 은사를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성령의 은사는 각 사람에게 다양하게 주어집니다(8-10). 그러므로 성도는 각각 다른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면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절하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감사와 감격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서 맡긴 일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성령의 은사를 그의 백성들에게 골고루 주셨습니다.

기도 제목 / ① 받은 은사로 충성하는 일꾼이 되게 하소서. ② 2002년 단기선교를 통해 전교회가 하나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무장되도록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덕목은 무엇일까요? 죄인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 인간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 그렇습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의 시편’이라 할 수 있는 본 먼저, 종교적인 행위들과의 대조를 통하여 사랑의 중요성을 말합니다(1-3절).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은 은사를 통하여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능력을 행하고, 구제를 할지라도 사랑이 없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사랑을 강조하는 것은 기꺼이 자기 몸을 속죄양으로 드려 인류를 구속하신 그리스도의 삶이 바로 사랑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바울은 사랑의 본질적 특성을 아름다운 시적(詩的)문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4-7절). 바울이 나열한 사랑의 모습들은 인간들에게서 발견되는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자신을 희생하여 기꺼이 그 고통을 감수하는 이타적인 ‘사랑’(아가페)으로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바울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13절).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께 대한 인간적인 태도이지만,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하나님 자신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총을 이웃에게 보여 줄 수 있겠습니까? 말로만으로는 보여줄 수 없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마음에 간직하여 우리 삶에서 재현할 때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생활해야 하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기도 제목 / ① 우리 자신을 희생하여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② 감기염 단기 선교사(스리랑카)가 맡겨진 영혼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은사를 받은 교회입니다(1:7). 그런데 방언을 받은 몇몇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은사만 최고라고 하면서 다른 은사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공중 예배를 매우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올바른 은사 활용에 대하여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은사를 구하되 “사랑을 따라 구하라”(1절)고 권면합니다. 그 동안 고린도 교인들의 문제들에 대한 바울의 답변의 핵심은 ‘사랑’이었습니다(8:1; 12:31; 13:13). 여러 능력을 행하는 신령한 은사도 중요하지만 사랑이 없이는 믿음과 구원의 공동체가 파괴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33절)라고 말합니다. 여자들의 두건 쓰는 문제와 그릇된 성만찬의 문제, 그리고 방언의 남용으로 인하여 고린도 교회는 뒤죽박죽이 된 상태입니다. 바울은 이런 어지러움 속에서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요 질서의 하나님이심을 강하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본성이 질서요 화평임을 믿는 자들은 결코 무질서와 불화를 일으키는 행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를 섬기며, 세상에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도록 하기 위해 은사를 내려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질서 있게 사용하여(26-33절), 믿음 공동체인 교회에서 덕을 세울 수 있는 화평의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34-36절).

우리 하나님은 화평과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도 제목 / ① 화평과 질서를 따라 섬기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② 최은아 평신도 단기선교사(스리랑카)가 현지에 잘 적응하고, 늘 성령충만하여 어린이와 심방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바울은 본 장에서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14절)라고 말함으로 부활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지를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신앙과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에 기초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통하여 이방 세계에 교회가 세워지고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8, 9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겸손의 말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확신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10절)라고 고백합니다. 이 은혜 때문에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하였으나 그것 역시 자신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의 근거와 존재의 바탕을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두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31절)고 고백합니다. 하늘 나라의 복된 소식을 올바로 전파하기 위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자신의 욕심과 성정(性情)을 날마다 죽이며 산다는 것입니다.

충현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바울처럼 ‘지극히 작은 자요, 만삭되지 못한 자’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나의 나된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십자의 복음을 위해 날마다 죽고 있습니까?

부활 신앙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바른 성도로 살게 합니다.

기도 제목 / ① 부활 신앙으로 철저하게 무장된 헌신자가 되게 하소서. ② 협력선교사(이집트의 헤요셉)가 지속적으로 일하며 구체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바울은 지금까지 최악의 도시인 고린도에서 힘겹고 위험스럽게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1:2)에게 책망과 권고와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바울은 이제 그들에게 마지막 부탁의 말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살아가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13절상). ‘깨어 있으라’는 말은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고 기도하면서 자기를 지키라는 말입니다. 둘째로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13절하). 용맹스러운 군인처럼 강건한 믿음으로 세상의 그릇된 것들과 맞서 싸워 이기라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14절).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사랑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악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격해야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형제들과 가난한 자들에게 대해서는 사랑으로 믿음의 결실을 나타내어야 함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만 간직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 갈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사랑으로 모든 일을 행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부패와 최악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 사는 우리 성도들이 승리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철저히 무장하여 믿음과 사랑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과 믿음으로 무장된 좋은 군사입니까?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서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의 정병들입니다.

기도 제목 / ① 세상의 최악을 믿음으로 이기어 승리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② ‘충현선교훈련원’(CMTC)을 통한 모든 훈련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바울의 자서전이라고 불리는 본 서신은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의 인간적인 모습이 특히 부각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사도로서의 소명과 권위를 분명히 밝힘과 동시에 성도들을 양육하고 지도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역자들의 참된 자세에 대해 잘 규명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으로 인해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합니다.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루스드라(행 14:19), 빌립보(행 16:19-24), 에베소(행 19:21-29) 등에서 당한 고난을 말합니다. 얼마나 고난이 심했던지 마음에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고 합니다(9절). 그러나 9절에서 10절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제 죽었구나” 하는 그 체념의 순간이 바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때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권력이나 재물로 이 세상을 흔들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암과 같은 불치의 병으로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게 되면 자신이 가졌던 권력이나 재물이 한낱 티끌에 지나지 않음을 깨닫고 인생의 허무함을 절감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인간의 생명은 참으로 짧습니다. 아담 이후 모든 인간은 사형선고를 받은 존재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갑니까? 주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천국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환난 중에 위로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기도 제목 / ① 환난을 당할 때 주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②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특히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중보기도하는 일이 곳곳에 일어나도록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사랑하는 사람에게 장미꽃을 선물하는 이유는 보기에도 아름답고 향기도 아름답기 때문일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성도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향기” 라고 합니다. 아름다운 꽃에서 아름다운 향기가 우러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향취가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향기는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한결같이 전해져야 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신앙을 평가하고, 교회를 평가하고, 예수를 평가하기도 합니다. 입으로는 성경지식을 막힘 없이 말한단 할지라도 그의 행동이 신앙인의 모습과 전혀 다르게 나타나거나,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일상생활에서 신앙인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점이 없다면 사람들은 신앙도, 교회도, 예수도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향기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이며(16절)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지키는 냄새입니다(17절).

세상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인생관과 사고방식,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굳게 붙잡고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풍겨야 할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기도 제목 / ① 나의 삶이 참사랑의 향기로 풍겨나게 하소서. ② 농어촌의 교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날로 부흥하여 민족 복음화의 산실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을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늘나라의 상속자이며(롬 8:17), 왕 같은 제사장(벧전 2:9)입니다. 이는 분명히 특별한 신분을 가진 사람입니다. 특별한 신분을 가진 사람은 마땅히 그 신분에 어울리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성도는 누구인가요? 나는 누구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성도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마음의 비에 새겨진 편지”라고 했습니다(3절). 편지는 보통 천이나 종이에 쓰지만 십계명처럼 돌에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마음에 써 살아 움직이는 생명과 같은 편지가 있다고 하면서 그 편지가 곧 성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데는 글자보다 살아있는 존재가 더욱 확실하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바울은 성도를 향하여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합니다(6절). 새 언약의 일꾼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는 일꾼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고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의 성도는 영광이 넘치는 의의 직분을 맡은 자입니다(9절). 이러한 정체성은 글자(의문/儀文)로 되어 주어지는 임명장이나 추천서와는 전혀 격이 다르고 차원이 다릅니다. 마음에 새기고 삶 자체로써 증거하는 영적인 직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생명을 주는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기도 제목 / ① 주님이 주신 직분을 기쁘게 감당하게 하소서. ② 전 주일학교가 오직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통하여 놀라운 부흥을 체험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질그릇은 모양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쉽게 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영광된 직분을 보배로, 그리고 복음 전파의 도구가 된 자신의 육체를 질그릇에 비유합니다(7절).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영광된 복음을 왜 깨어지기 쉽고 연약한 인간에게 주셨습니까?

그것은 첫째, 복음의 절대적인 구원의 능력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이고, 바울이나 그것을 전하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둘째로는, 인간의 연약성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인간은 누구도 자랑할 수 없으며 오직 연약한 육체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만을 자랑할 수 있을 뿐임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의 교만과 자랑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체험을 통하여 질그릇에 담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설명합니다. 바울은 마치 질그릇과 같아서 날마다 깨어지고 부서지고 짓밟히면서 죽음의 위협에 직면하지만 놀랍게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증언합니다(8-15절).

우리가 살다보면 건강이 무너지고, 사랑이 깨어지고, 물질을 잃는다거나 학업을 중단하는 등 수많은 실패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러한 질고 가운데서도 찬양이 넘치고,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도 감사가 넘치는 것은 질그릇 같은 이 육신 안에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날마다 새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잠시지만 영광은 영원합니다.

기도 제목 / ① 고난 중에도 감사와 찬송이 넘치게 하소서. ② 5부 예배를 통해 주의 청년들이 복음에 매이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는 사실을 믿는 것도 되지만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 다시 살아 나셨다”는 구원의 은총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은총의 사람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17절). 새로운 피조물이란 새로운 사람 즉, 새로운 삶의 의미와 목적을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통하여 거듭난 사람입니다. 이제는 육신에 의한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그리스도와 하나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사모합니다(1-5절).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난 사람입니다(6-10절).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11-15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듯이 그리스도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화목케 하는 사명을 수행해야 합니다(11-21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새로운 피조물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개인적인 구원의 차원에서 머무르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화목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받은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믿음과 행함이 일치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 제목 / ① 우리를 복음전파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소서. ② 이 땅에 소외받는 자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구역예배공과

구역예배순서

찬 송	다같이
구역공과	인도자
기 도	인도자
주기도문	다같이

- ▶ 구역예배 소요시간은 최소한 40분 정도가 필요합니다.
다. 인도자의 지도에 따라서 최선을 다할 때 은혜가 넘치는 구역예배가 될 것입니다.

제 1 과

빛에 행하자

• 찬송 / 318장(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 본문 / 사 2:1~5

• 이 찬송의 원곡은 사제의 초창처럼 기계적이어서 안됩니다. 가사의 내용을 묵상하며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좌절히 템포를 조절해가시며 찬송하십시오.

느리게 ♩ = 52

• 이 두부분의 관계는 마치 질문과 대답과도 같은 관계입니다. (서로 대화하듯)



1.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2.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라
3. 세월이 살 길이 빠른 게 지니 패락이 끝이나고
4.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 이 성조를 꼭 지켜주세요 (짧은 순간의 정적이지만 뒤에 나올 가사의 내용을 기대하게 합니다.)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돌리며 가리우네
죄 많은 세상에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후렴 (점점 서게)

힘있게

조금씩 느려지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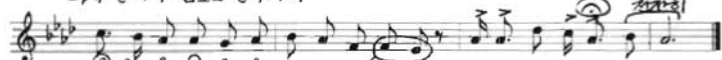
느린표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오라)

• 하행하는 반음계적 선율은 잔잔한 느낌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다시 본래의 템포로 돌아와서



죄 있는 자들이 이르러 오라 주에 수 앞에 오라

• 여기는 첫째 둘째단과는 달리 약간 강조하며 마무리 해 주세요. (권면)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318장)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마 11:28~29)

이 찬송의 작시 작곡자인 윌 래마타인 톰프슨(Will Lamartine Thompson, 1847~1909)은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의 한 부유한 가정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유함을 오직 주님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결심하며 평생을 찬송의 작시, 작곡에만 전념하며 살았습니다. 눅 15:11~32의 탕자의 비유에 관한 말씀을 바탕으로 작시, 작곡된 이 찬송은, 예수님께서서는 죄인들이 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진정으로 바라고 계시다는 것을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 먹은 뒤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을 숨기었습니다. 죄는 이렇듯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시키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예수님께서서는 언제나 부드러운 음성으로 죄인 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것도 가만히 앉아 계시면서가 아니라 몸소 나와 찾으시며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말입니다(1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죄가 무서운 것은 주님의 간절한 그 음성을 들어도 무심하게 하며 결국엔 외면하게 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의 음성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2절). 이 세상 어떤 것도 세위의 흐름을 막을 수 없습니다. 세상 최악 가운데 속했던 삶은 결국엔 죽음을 눈앞에 두게 됩니다. 이러한 한계를 두신 것도 또한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 있을 동안이라는 기회 안에서 진정으로 예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연약하고 죄인 된 자신을 발견하고 더욱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소원합니다(3절). 예수님께서서는 죄인들을 부르시지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집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육신의 생명이 다 한 후에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생명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참 생명을 가지신 참 빛 되신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이 여기에 있습니다(4절).

들어가면서(서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인 야곱 족속을 부르셨습니다. 야곱의 족속을 향한 소명은 단수적인 것이지만, 초청은 복수적인 것이었습니다(야곱 족속을 부르셨지만, 실제로는 모든 족속을 초청하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모든 세상이 빛 속을 걷게 되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주께로 나온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든지 주의 빛 가운데서 걸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위대한 초청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빛을 거부하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자신들의 마음을 베일로 덮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야곱 족속(이스라엘 족속) 된 그리스도인들이 베일을 거두고 주께로 나아와 빛에 행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모여들도록 기도합시다.

머물면서(본론)

1. 먼저 오늘의 본문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보십시오(우선 이사야 2장 1절~5절을 읽고, 정해진 구절, 정해진 핵심단어에 따라 자신의 말로 기록해 보십시오).

① 1절 - 여호와의 계시

② 2절 - 말일에(in the last days) 되어질 일

③ 3절 - 많은 백성들의 기대

④ 4절 - 주의 나라와 통치

⑤ 5절 - 우리가 해야 할 일

2. 다음주일 설교('빛에 행하자')의 단원에 따른 질문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려는 교훈을 나누어 보십시오.

① '위대한 초청' 단원을 읽고, 초청하는 자는 어떠한 분이시며, 그 초청을 받은 자는 어떠한 자들인지 말해 보십시오(빛 가운데로 초청하시는 분과 초청을 받은 대상자가 각각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②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 단원을 읽고, 빛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말해 보시고, 그 빛 가운데로 나아올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말해 보십시오(빛이 의미하는 것과 빛 가운데 나아올 때 얻게 되는 유익을 살펴보십시오).

③ '빛에서 행함' 단원을 읽고, 빛 가운데서 행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지 말해 보십시오(마음이 행동을 결정하므로 빛 가운데서 행하려면 어떠한 마음이 필요한지 살펴보십시오).

④ '빛에 대한 분별' 단원을 읽고, 빛이 아닌 것들은 무엇인지 말해 보십시오(해당 단원 속에서 빛이 아닌 것으로 묘사된 것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⑤ '빛 가운데서 깨닫는 은혜' 단원을 읽고, 믿는 자들이 빛 가운데서 무엇을 깨닫게 되는지 말해 보십시오(빛 즉,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을 하는지 살펴보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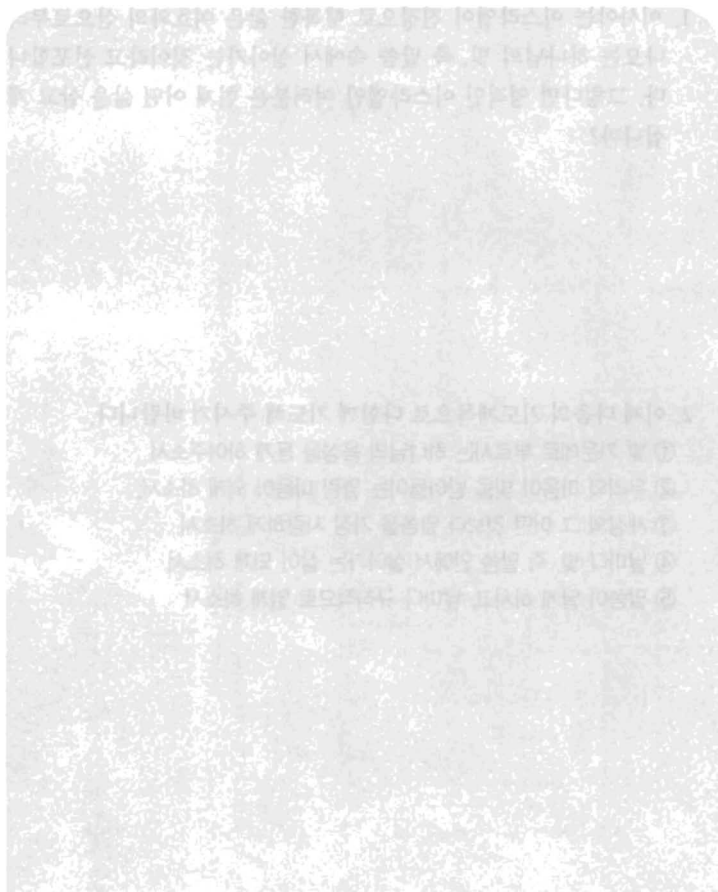
⑥ '빛 가운데서 누리는 축복' 단원을 읽고, 믿는 자들이 빛 가운데서 어떠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지 말해 보십시오(신자가 말씀에 사로잡히게 될 때, 어떤 기쁨과 즐거움이 생기는지 살펴보십시오).

나가면서(결론)

1. 이사야는 이스라엘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은 여호와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이스라엘인 여러분은 현재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2. 이제 다음의 기도제목으로 다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빛 가운데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주소서.
- ② 우리의 마음이 빛을 받아들이는 열린 마음이 되게 하소서.
- ③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말씀을 가장 사랑하게 하소서.
- ④ 날마다 빛, 즉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소서.
- ⑤ 말씀이 달게 하시고, 날마다 규칙적으로 읽게 하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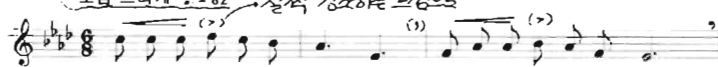
제 2 과

내게 들을지어다

• 찬송 / 319장(온유한 주님의 음성) • 본문 / 사 46: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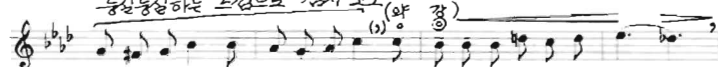
• 한 마디를 두 박으로 해서 처지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유의해서 찬송합니다.

조금 느리게 ♩ = 62 살짝 강조하는 느낌으로



1. 온 유 한 주 님 의 음 성 내 귀 에 속 삭 이 네
2. 사 랑 의 주 예 수 친 히 이 땅 에 내 려 오 사
3. 주 님 이 무 르 을 성 별 받 아 주 시 나 니
4. 주 님 의 은 혜 를 받 고 예 수 님 영 접 하 라

등심등심하는 느낌으로 점차 강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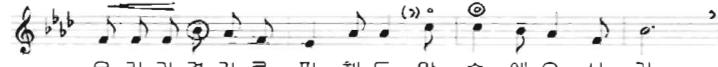


네 미 음 문 을 두 드 리 니 왜 주 님 을 피 하 느 나
문 밖 에서 서 기 다 리 니 참 놀 라 운 사 랑 이 라
죄 버 린 네 게 임 하 시 사 끝 까 지 널 도 우 시 네
마 음 문 활 짝 열 어 놓 고 너 주 님 을 영 접 하 라

후렴



피 하 지 말 라 피 하 지 말 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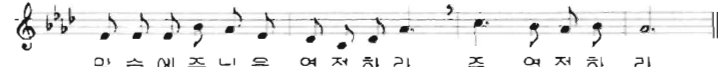
우 리 가 결 결 로 피 해 도 맘 속 에 오 시 리

미장한 각오를 가지고.



심 판 날 당 할 때 주 님 을 너 맞 을 준 비 해

• 이 마지막 단은 가성지 않은 느낌으로 한음한음 가사를 강조하여 찬송합니다.



맘 속 에 주 님 을 영 접 하 라 주 영 접 하 라

‘온유한 주님의 음성’ (319장)

“볼찌어다 내가 문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계 3:20)

이 찬송의 작시 작곡자인 할도 리레나스(Haldor Lillenas, 1885~1959) 목사는 노르웨이계 미국의 전도 목사입니다. 그는 이미 젊은 시절에 신학과 음악공부를 마치고 목사안수를 받은 후 평생에 걸쳐 4,000여 편 이상의 찬송가를 작시 작곡하며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전에 놀라운 꿈을 꾼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종말을 맞이하는 꿈이었습니다. 저는 그 때 방안에 있었는데 갑자기 밖에서 기분 나쁠 정도로 음산한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동시에 사람들의 절규에 가까운 비명소리와 “세상의 종말이다!”라는 외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깜짝 놀라서 창문을 열어보니 사람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정말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온 하늘이 어마어마한 불덩어리가 되어 지상을 향하여 꿈틀거리며 서서히 무너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그 때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지내던 사람들이 더 큰 목소리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는 이미 예수님께서선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꿈에서 깬 저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이 찬송의 가사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곳이 있습니다. 후렴 중에 ‘심판 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시길 소원하시며 지금도 내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의 온유하신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심판 날에 세상의 믿지 않던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절규하지만, 진정으로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신 성도님들은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을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들어가면서(서론)

우리는 자주 부모님과 친구들, 그리고 여러 목회자들로부터 “내 말을 들으십시오”라는 말을 듣지만, 실제로는 그다지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르십니다. “야곱의 집이여 나에게 들을지어다”. 세상적으로 말하자면, 야곱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그는 어리석고, 거짓말쟁이며, 속이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들으라고 야곱의 집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과 가난한 자들이 그분의 말씀을 듣도록 부르신다는 것이 기독교의 교리입니다. 그러므로 이 짧은 구절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본성을 드러내며, 그분의 섭리와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신 지속적인 친절하심을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열도록 합시다.

머물면서(본론)

1. 먼저 오늘의 본문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보십시오(우선 이사야 46장 1절~7절을 읽고, 정해진 구절, 정해진 핵심단어에 따라 자신의 말로 기록해 보십시오).

① 1절~2절 - 우상의 헛됨

② 3절~4절 - 야곱의 집, 몸을 것

③ 5절 - 누구에게 비교할 수 있는가

④ 6절~7절 - 우상을 섬기는 자가 어리석은 이유

2. 다음주일 설교(‘내게 들을지어다’)의 단원에 따른 질문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려는 교훈을 나누어 보십시오.

①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과 그분의 말씀이 변함없다는 사실은 그분의 변함없는 성품을 입증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변함없는 주님의 마음’ 단원을 읽고,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본성으로 우리를 다루신다는 것이 왜 중요한 것인지 말해 보십시오(시 25:21, 애 3:23).

② ‘지난날의 은혜’ 단원을 읽고, 여러분의 과거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들을 열거해 보도록 하십시오(현재에서 과거로, 2002년 1월 달까지).

③ ‘변함없는 하늘의 소망’ 단원을 읽고, 성경이 말하는 소망과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소망을 각각 열거해 보십시오(갈 5:5, 벰전 1:3, 요일 3:3, 딤후 3:7, 엡 4:22, 딤후전 6:17). 그리고 그 차이가 무엇인지도 말해 보십시오.

④ '위대한 결말' 단원을 읽고, 믿는 자의 결말과 불신자의 결말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인지 말해 보십시오(딤후 3:7, 호 10:12, 특별히 실제적인 면과 정신적인 면에 있어서의 차이를 말해 보십시오)

⑤ '들음에서 생기는 은총' 단원을 읽고, 여러분은 자신의 노년기에 대해 어떤 상상이 되는지 말해 보십시오(욥 12:12, 32:9, 시 119:100, 잠 20:29, 물론 우리의 생명의 기한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총과 관련해서 어떤 노년기가 될 것 같은지 말해 보십시오).

⑥ '놀라운 임무' 단원을 읽고, 노년기에 해야 하는 놀라운 임무가 무엇인지 말해 보십시오(행 20:31, 엡 6:4).

나가면서(결론)

1. 세상은 노년기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이 없고, 청년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물론 요즘은 우리 사회에서도 노인에 대한 시각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사회적인 기여도와 기능적인 측면에서 볼 때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노년기에 대해서는 기대가 낮습니다. 그래서 그저 안락한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노인들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노인들이 자녀들과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천국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는 노인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의 주되심, 그리고 천국이 증거되는 것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2. 이제 다음의 기도제목으로 다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변함없으신 주님의 마음과 손길로 나를 붙들어 주소서.
- ② 지난날의 은혜를 감사하게 하소서.
- ③ 하늘에 속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소서.
- ④ 죽음의 문을 지나야 영생이 있음을 확신하게 하소서.
- ⑤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은총을 누리게 하소서.

제목 :

제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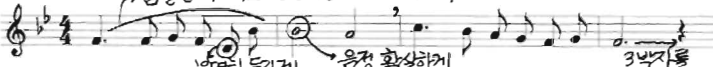
제 3 과

예수의 얼굴

• 찬송 / 541장(저 요단강 건너편에) • 본문 / 이사야 50: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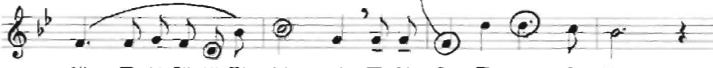
모듬으로 ♩ = 92

음들간에 서로 단절되는 느낌이 없도록
분명히 들리게 음정 확실하게 3박자를



1. 저 요 단 강 건너 편 에 찬 란 하 게 보 는 집 깎
2. 주 가 내 게 부 탁 하 신 모 든 역 사 마 친 후 재워서
3. 성 도 들 이 함 께 모 여 할 헬 루 야 부 를 때
4. 이 세 상 에 사 는 동 안 주 의 일 을 힘 쓰 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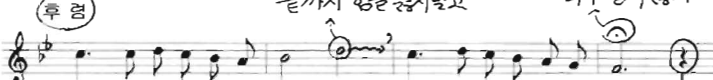
• 음이 좀 낮지만 편안한 강박이므로
이 음부터 힘있게 시작하여 찬송합니다.



예 루 살 렘 새 집 에 서 주 의 얼굴 보 오 리
예 비 하 신 그 집 에 서 주 의 얼굴 보 오 리
나 도 기 켜 마 음 으 로 화 답 하 여 쿠 르 리
썩 을 장 막 떠 날 때 에 주 의 얼굴 보 오 리

• 가사제 대한 진정한 감동과 은혜를 느끼시면서 겸만한 감정 표현을
해 보세요.

후렴 끝까지 힘을 잃지 말고 너무 잘지 않게



빛 난 하 늘 그 집 에 서 주 의 얼굴 보 오 리
후렴
충분히.

• 강력에 가득찬 느낌으로 힘있게

• 한음 한음 다 소중히



한 량 없 는 영광 중 에 주 의 얼굴 보 오 리

‘저 요단강 건너편에’ (541장)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계 22:3~4)

이 찬송은 미국의 여류 찬송 작가인 캐리 브렉(Carrie E. Breck, 1855~1934)이 1898년에 작시하고 역시 미국의 부흥 목사였던 그랜트 콜팩스 툴라(Grant Colfax Tullar, 1869~1950) 목사가 작곡한 곡으로 장차 천국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뵈게 될 감격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찬송의 작시자인 브렉 여사는 미국 버먼트 주 출신의 독실한 장로교인으로서 평생에 걸쳐 1,400여 편 이상의 많은 찬송시를 썼습니다. 그녀가 고백하기를 자신이 사는 동안 무엇을 하든지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찬송의 영감을 얻으며 시를 썼다고 말합니다.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생기셨을까?’ 하고 말입니다. 물론 성화에서 보이는 예수님의 얼굴은 약간은 가름하면서도 잘생긴 모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말 실제로 예수님의 얼굴을 대하여 뵈을 날을 생각하면 이러한 모든 상상과 생각들은 비교할 수 없는 것이겠지요. 지금은 실제로 얼굴을 알지 못해도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날 구원하여 주신 참 생명과 사랑의 구세주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날 대신하여 온갖 멸시천대와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은혜의 구세주이심을 믿습니다. 그 옛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들이 그러했듯이 오늘날의 세상도 예수님의 증인된 우리들을 핍박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해 주시며 위로하여 주십니다. 인내하며 수고한 우리들이 빛난 하늘 그 집에서 다시 만나게 될 때에 가장 큰 기쁨과 영광 가운데 우리 주님의 얼굴을 직접 대하며 예수님을 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 기쁨과 감격을 생각하시면서 다함께 이 찬송을 불러봅시다.

들어가면서(서론)

예수의 마음은 부드럽고 겸손하며 따뜻하고 친절하며 사랑스럽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얼굴은 단단한 부싯돌과 같습니다. 예수께서는 지상에서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동안에,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비난과 고통을 모면하려 하거나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가매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눅 9:51). 그의 얼굴은 단단한 부싯돌과 같습니다. 십자가의 길이 주님 앞에 놓여 있었지만, 그분은 그 길을 변경하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그분을 도울 자가 아무도 없었고 오히려 그분을 찌를 자들로 가득했지만, 주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길을 따라 걸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정말로 약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실 것을 결심하셨습니다. 고통스러운 환경과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고통을 직면하셔야 했으며, 결코 도망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걷기 위한 예수의 굳은 결심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에게 커다란 격려가 될 것입니다.

머물면서(본론)

1. 먼저 오늘의 본문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보십시오(우선 이사야 50장 4절~9절을 읽고, 정해진 구절, 정해진 핵심단어에 따라 자신의 말로 기록해 보십시오).

① 4절 - 학자의 혀, 학자의 귀

② 5절~6절 - 고난과 맞섬

③ 7절 - 자기를 부인함

④ 8절 - 의롭다 하시는 이

⑤ 9절 - 도우시는 이

2. 다음주일 설교('예수의 얼굴')의 단원에 따른 질문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려는 교훈을 나누어 보십시오.

- ①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으심' 단원을 읽고, 예수께서 공생애 기간 동안에 받으셨던 모든 시험에 대해 말해 봅시다. 그리고 그 시험에 대해 흔들리지 않으신 이유, 즉 '그분의 얼굴은 부식돌과 같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말해 봅시다.

② '배신과 조롱에도 흔들리지 않으심' 단원을 읽고, 예수께서 공생애 기간 동안에 받으셨던 배신과 조롱이 무엇이었는지 말해 봅시다. 그리고 그 배신과 조롱에도 아랑곳하지 않으셨던 이유에 대해서도 생각해 봅시다 (눅 9:23을 참조하시되 먼저 의견을 말한 다음에 성경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일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생각해 봅시다.

③ '시련에 맞서심' 단원을 읽고, 예수께서 시련에 맞서실 수 있었던 근거에 대해 말해 보십시오(성경본문을 자세히 관찰하시고, 하나님과 관련된 부분을 통해서 생각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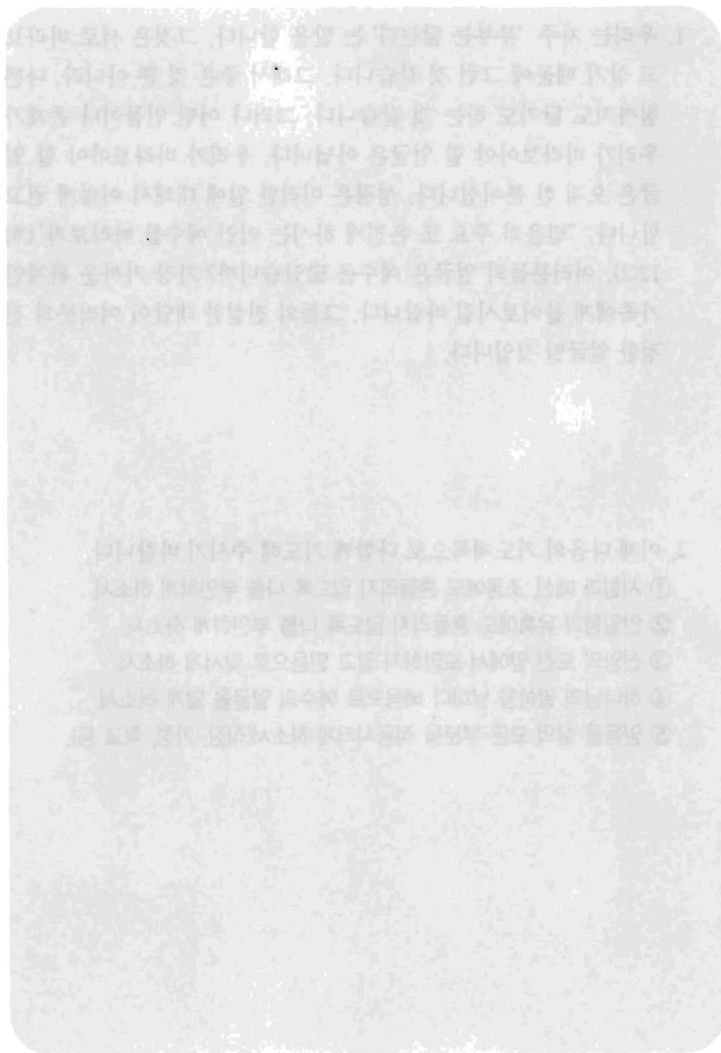
④ '예수께 배워야 함' 단원을 읽고, 여러분이 날마다 배우고 실천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말해 보십시오(먼저, 딤후 3:16의 말씀처럼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한다는 것의 의미를 이해하시고, 그것들에 적용시켜서 생각해 보십시오).

⑤ '믿음이 있어야 함' 단원을 읽고, 믿음이 있어야 하는 절대적인 이유에 대해 말해 보십시오.

1. 우리는 자주 '부부는 닮는다'는 말을 합니다. 그것은 서로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 뿐 아니라, 나쁜 점까지도 닮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인물이나 존재가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얼굴은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얼굴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성경은 이러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권고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히 12:2). 여러분들의 얼굴은 예수를 닮았습니까? 가장 가까운 관계인 가족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의 진실한 대답이 여러분의 진정한 얼굴일 것입니다.

2. 이제 다음의 기도제목으로 다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시험과 배신, 조롱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나를 부인하게 하소서.
- ② 안일함과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나를 부인하게 하소서.
- ③ 신앙의 도전 앞에서 도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맞서게 하소서.
- ④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배움으로 예수의 얼굴을 닮게 하소서.
- ⑤ 믿음을 삶의 모든 부분을 적용시키게 하소서(직장, 가정, 학교 등).



제 4 과

돌아오라

• 찬송 / 331장(나 주를 멀리 떠났다)

• 본문 / 렘 3:12~22

- 이 곡을 지나치게 느리고 처지게 노래하는것은 좋지 않습니다.
적당한 템포를 유지하시면서 가사에 맞춰 완곡을 조율해가며 찬송합니다.

보통으로 ♩ = 92 (약박으로 시작해서 강박으로 진행)
못갖춘마디 당감음 리듬 (약간 탄력있게)

1. 나 주 를 멀 리 떠 났 다 이 제 옵 니 다
2. 그 귀 한 세 월 보 내 고 이 제 옵 니 다
3. 나 죄 에 매 여 고 달 라 이 제 옵 니 다
4. 이 병 든 망 울 고 치 려 이 제 옵 니 다
5. 나 바 람 것 이 무 연 가 우 리 주 에 수

당감음

나 죄 의 길 에 시 달 러 주 여 옵 니 다
나 누 우 치 는 눈 물 로 주 여 옵 니 다
주 크 신 사 랑 받 고 자 주 여 옵 니 다
큰 힘 과 소 망 바 라 고 주 여 옵 니 다
날 위 해 돌 아 가 심 만 믿 고 옵 니 다

후 령

• 이와같은 완곡의 느낌을 갖고 가사를 노래합니다.

나 이 제 왔 으 니 내 집 을 찾 아

당감음

주 여 나 를 받 으 사 맞 아 주 소 서

‘나 주를 멀리 떠났다’ (331장)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눅 15:18)

이 찬송은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 태생의 사업가이자 평신도 찬송 작가인 윌리엄 제임스 커크패트릭(William James Kirkpatrick, 1838~1921)이 1892년에 작시 작곡한 곡입니다. 1892년 당시 그는 펜실베이니아 로린즈빌 캠프집회의 찬송을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집회에는 음악적으로 매우 뛰어난 한 청년이 독창자로 있었는데 실은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커크패트릭은 이 청년의 구원 문제를 놓고 밤새워 기도하던 중 성령님의 영감을 받고 이 찬송(‘나 주를 멀리 떠났다’)을 작시 작곡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음날 저녁 집회 때 커크패트릭은 이 찬송을 그 청년에게 주어 찬송하게 하였습니다. 그날 밤 이 찬송을 부르던 그 청년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함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멀리 떠난 죄인의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삶이기에 자유로운 삶인가요? 세상이 주는 온갖 것들을 누릴 수 있는 마냥 행복한 삶일까요? 이와 같은 사람이 있다면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은총을 입은 죄인은 예수님을 떠난 삶이 죄의 길임을 깨닫게 되며 곤고함과 갈급함을 갖게 됩니다(1절). 죄악 가운데 헤매었던 삶을 이제는 뒤로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습니다(2절). 예수님을 떠나 죄에 매였던 삶에 대하여 고달파하며 주님의 사랑을 찾아 돌아오게 됩니다(3절). 죄로 말미암아 병든 몸과 맘을 가지고 예수님만이 이를 치료하실 수 있음을 믿고 나아오게 됩니다(4절).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만을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며 나아오게 됩니다(5절).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 주님을 향한 내 죄의 자복과 회개가 있기를 바라면서 간절한 심정으로 이 찬송을 불러봅니다.

들어가면서(서론)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주 우리를 향하여 자신에게로 돌아오라고 요청하십니까? 죄의 길에서 돌이켜 그분의 길로 돌아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없이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루종일 외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주께서 믿는 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베푸시는 친절과 사랑, 돌보심과 자비하심, 이 모든 것들은 측량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깊고 깨어지지 않는 언약은 커다란 평강으로 믿는 자들의 가난한 마음을 가득하게 채웁니다. 이러한 것들을 버리고 믿는 자들이 타락하게 될 때, 진실로 그것은 가장 끔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세상과 육체에 속한 것으로 채우려고 되돌아서는 것은 더욱 슬픈 일입니다. 믿음을 가졌던 자들이 죄와 벗삼는 생활로 되돌아가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소망과 평강, 그리고 축복과 언약으로부터 멀리 도망가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비열한 행동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만일 믿는 자가 사악한 행동에 의해 이 세상으로부터 어떤 가치를 얻는다면, 진실로 그는 아무 것도 얻지 못한 것입니다. 축복은 오직 왕 중의 왕이요, 자비의 하나님이신 창조자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머물면서(본론)

1. 먼저 오늘의 본문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보십시오(우선 예레미야 3장 12절~22절을 읽고, 정해진 구절, 정해진 핵심단어에 따라 자신의 말로 기록해 보십시오).

① 12절 - 돌아오라

② 13절 - 자복하라

③ 14절 - 돌아오리

④ 15절 - 목자를 주리니

⑤ 16절~18절 - 열방

⑥ 19절~20절 - 속였느니라

⑦ 21절 - 잊었느니라

⑧ 22절 - 돌아오라

2. 다음주일 설교(‘돌아오라’)의 단원에 따른 질문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려는 교훈을 나누어 보십시오.

- ① ‘변함없이 영접해 주심’ 단원을 읽고, 하나님께서 멀리 떠났던 자들을 다시금 영접해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생각해 봅시다(눅 15:18, 20, 29, 32을 참고로 돌이켜야 할 것, 돌아갈 곳, 그리고 영접해 주실 자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지 말해 보십시오).
- ② ‘첫 만남의 음성을 기억하고’ 단원을 읽고, 예수를 처음으로 영접하고 기쁨을 누렸던 순간과 지금을 비교해 보시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해 보십시오(계 2:4, 단 4:16, 호 4:7).
- ③ ‘부르심에 순종해야 할 이유’ 단원을 읽고, 하나님에게서 떠났던 자들이 부르심에 순종해야 할 이유들을 말해 보십시오(창 3:9, 35:10, 롬 8:30, 살전 5:24).
- ④ ‘과거에서 벗어나서’에 대한 단원을 읽고, 회개와 죄용서의 확신과의 관계를 생각해 봅시다(죄용서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것과, 죄용서를 너무나 값싸게 생각하고 남용하는 일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 ⑤ ‘돌아오는 자들을 향한 축복’에 대한 단원을 읽고, 주께로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언약과 은혜가 주어지는지 말해 보십시오.

나가면서(결론)

1. '돌아오라' 고 멀리 떠났던 자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러나 부르심 못지 않게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에게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로부터 마음을 지키십시오. 또한 만일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다면 '돌아오라' 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속히 돌아오십시오.

2. 이제 다음의 기도제목으로 다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죄인을 변함없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소서.
- ②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감격과 헌신의 시간을 회복하게 하소서.
- ③ 날마다 죄를 고백함으로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게 하소서.
- ④ 주님에게서 멀어져 간 형제나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 ⑤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소서.

제목:

본문:

16:22-23 주 하나님께 영광과 보은을 드리게 하옵소서.

17:1-2 주 하나님께 영광과 보은을 드리게 하옵소서. 17:3-4 주 하나님께 영광과 보은을 드리게 하옵소서. 17:5-6 주 하나님께 영광과 보은을 드리게 하옵소서. 17:7-8 주 하나님께 영광과 보은을 드리게 하옵소서. 17:9-10 주 하나님께 영광과 보은을 드리게 하옵소서.

남성도구역예배공과

구역예배순서

찬 송	다같이
구역공과	제4과
기 도	인도자
주기도문	다같이

- ▶ 이번 달부터 ‘남성도구역공과’는 ‘구역예배공과’
중에서 하기로 하였습니다. 매달마다 ‘제4과’를 해
당공과로 삼아서 공부하기로 합니다.

동행이론두코상합

동행이론두

동행이

동행이

동행이

동행이

동

동행이

동행이

동행이

동행이론두는 동행이론두코상합 이론을 이용하여
동행이론두를 동행이론두코상합 이론을 이용하여
동행이론두를 동행이론두코상합 이론을 이용하여

가정예배 안내

예배순서

찬 송	다같이
성경봉독	사회자
메시지 낭독	
기 도	다같이
주 기도	다같이

예배 소요시간

약 15분 내외가 적함

• 예배 사회자

가장 또는 가족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인도

• 찬송과 성경 본문

가정예배 안내서의 해당 일자에 소개된

찬송을 부르고, 성경 본문을 봉독

충현의 만나 · 2002년 6월호 · 발행인 / 김성관 · 편집인 / 노광현

· 집필진 / 만나 : 박인기(1-9, 26-30일), 이성욱(10-25일) 목사

· 구역예배공과 : 김동하 목사

· 발행처 / 충현교회 출판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200) [비매품]
